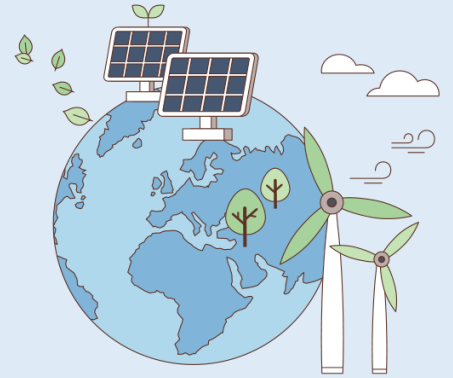


# ESG

##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_isbang@eugenefn.com

### E (Environment)

#### 주간 국내 기사

- "12개국서 청정수소 조달... 에너지 자급률 60%까지 높일것" *서울경제*
- 환경보전 앞장서는 마켓컬리 나무 직접 심어 '셋별숲' 조성 *디지털타임스*
- 금호석화, 中 환경규제에 현지합작사 NKGC 15년만에 철수 *파이낸셜뉴스*
- "전기차 성장에 배터리 광물 수요 급증" 부족 우려 커진다 *이데일리*
- KT-한국가스공사, 탄소제로 IDC 공동개발 추진 *뉴시스*
- "일회용 플라스틱 OUT"...대상이 400억 투자해 설립한 곳은? *이코노미스트*
- "해저 케이블, 신재생 붐타고 美중동 등 주문 쇄도" *뉴시스*
- 페트병 재활용한 의류, 품질도 착하다 *경향신문*
- 지붕만 빌려줬을 뿐인데...매년 3천만원 꽃힌다 *매일경제*

### G (Governance)

#### 주간 국내 기사

- 구글 CEO 만난 이재용 부회장 "삼성과 미래 혁신 공조" *경향신문*
- SKC, 친환경 소재 육성 위해 산과 1.5조원 금융 협력 *아시아경제*
- LG그룹, 179명 임원인사... 핀셋인사로 '안정속 혁신' 포석 *디지털타임스*
- 개발자 출신 '류' CEO 합류... 소셜 임팩트 탄력 붙는다 *파이낸셜뉴스*
- SK E&S, '파킹클라우드' 지분 인수...NHN 측과 공동 경영 *이데일리*
- 한샘, 내년 분기배당 실시...6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뉴시스*
- CJ제일제당 건강사업부 분사... 내년 'C'웰케어 출범 *조선일보*
- 순혈주의 깨는 롯데...백화점 수장에 신세계 출신 정준호 대표 *서울경제*
- 코로나19에도 지배주주 임원 연봉은 대부분 증가 *경향신문*

### S (Social)

#### 주간 국내 기사

- 정의선 "일자리 4만6천개 창출...청년 더 뽑는 게 현대차의 의무" *한국경제*
- 삼성이 앞장선 일감몰아주기 해소... 현대차-SK 등 경쟁입찰 도입 전망 *파이낸셜뉴스*
- 대법 "고정 시간외수당, 연장근로 대가면 통상임금 아냐" *뉴시스*
- 대리도 그룹장도 "김 프로, 박 프로"...포스코ICT, 직급 폐지 *머니투데이*
- 한전KPS, 靑 출신 사외이사 선임... 임기 말 '낙하산' 논란 계속 *한국일보*
- 한국타이어 노조 '임단협 결렬' 결의대회 열어... "총 파업 돌입" *뉴시스*
- 인천공항공사, 창사 이래 첫 여성 부사장에 이회정 *아시아경제*
- 원전 5기 손실 비용 6,666억원... "국민 전기요금 부담 더 커질 것" *서울경제*
- 워라벨 확산에도 '이것' 쓰기 어렵네... 직장인 절반 '속앓이' *아이뉴스24*

###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 주간 국내 기사

- 해외 ESG 정보 공시 전쟁은 시작됐다 *한경비즈니스*
- 국부펀드 KIC-국민연금 대체투자 인력 대거 이탈 *동아일보*
- 유행따라 수익따라 골프-NFT 등 이색 'ETF' 출시 이어져 *이코노미스트*
- 우분-삼성생명, 4000억 규모 해외 공동투자 펀드 조성 *뉴시스*
- 글로벌 메가트렌드 '편승'...지수개발 인력확보 '사활' *더벨*
- 기후변화가 ESG 핵심인데...기관 투자자 절반은 "기후변화 리스크 무대응" *매일경제*
- 전경련 "기업들 코로나19 실적 악화에도 ESG 투자 늘려" *조선일보*
- '기후 변화 시대' 북극 해빙으로 신영토 경쟁 *한경비즈니스*
- ESG 우수 글로벌 기업 투자... 안정적인 수익 눈길 *동아일보*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 ESG FOCUS UPDATES

## 배양육 개발 동향 및 전망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1.25

E

- 배양육은 동물의 세포를 주원료로 하며 체외 배양을 통해 맛과 영양성분이 고기와 유사한 형태로 생산하는 대체육의 한 종류임. 개발 초기 Lab-grown Meat, In Vitro Meat 등으로 불리다가 환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Clean Meat로 명명되었고, 이후 의견 조율을 거쳐 현재는 Cultured Meat 또는 Cultivated Meat로 통용되고 있음
- 배양육의 생산은 기존 육류와는 다르게 가축의 사육과정이 없는 상태로 동물성 단백질을 생성하는 세포농업으로 말할 수 있으며, 식물성 대체육. 식용 곤충에 비해 기존 육류와 유사도가 높아서 육류 풍미의 재현성이 우수
- 배양육은 2013년 기술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생산비 절감에 대한 이슈가 있어 해외 주요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 중임
- 2013년 마크 포스트 교수가 창업한 모사미트(Mosa meat)에서 세계 최초로 시식 가능한 배양육 햄버거 패티를 처음 선보임. 시식용 배양육 생산비용(100g당 가격)은 37만달러(13)에서 1,986달러(17)로 낮아졌고 '21년 현재 10달러를 목표로 기술개발 중
- 2040년 전통 육류 소비시장은 '25년 대비 33%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배양육을 비롯한 대체육이 전체 육류 소비시장의 6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배양육은 동물복지에 기여하고 대지 사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삼림과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식용을 위한 유전적 불안정성 문제해결과 안전기준 필요
- 배양육은 동물로부터 단백질만 취하는 과정이므로 도축되는 동물의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어 동물 학대 등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환경 연구 그룹 CE Delft에 따르면 배양육은 전통 육류생산에 비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92% 적고, 공기 오염은 93% 적으며, 대지는 95%를 적게 사용함
- 배양육 생산과정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 활용에 따른 GMO 논란이 있으나 미국, 유럽 등에서 안전한 배양육 생산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검토 중에 있음

## 일본 DBJ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현황

- KDB 미래전략연구소 21.11.25

A

-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은 지속가능성을 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
- DBJ는 '17년 4차 중기경영계획 수립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실현'을 은행의 주요 역할로 설정하였으며, '21년에는 경영 환경 변화 요인 중 지속가능성에 주목함. 디지털화, 고령화, 국제화, 지속가능성을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4대 메가 트렌드로 선정
- 특히, 코로나19 사태 대응 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였다고 파악
- 일본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속가능성 정책을 수립'(17.5월)하여 사업 수행시 의 사결정 기준으로 활용
- 대외적으로는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타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장 활성화 도모, 투자자와의 건설적 소통 추구 등으로 고객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신체·정신 건강 향상과 동기 부여를 추구하는 한편, 성별·연령·국적 등에 대한 차별을 배제하도록 명시
- 경영 전략 측면에서는 'GRIT 전략' 추진을 통해 인프라, 산업, 지역의 3대 중점 사업 분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중임. GRIT(Green, Resilience & Recovery, Innovation, Transition) 전략이란 안전하고 견실한 지역·사회·산업 기반 구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 혁신(R&D 등)과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의미
-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인증 절차에 기반한 지속가능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 앞 제공. 일본 정부의 에너지원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며, 일본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장 형성에도 기여
-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자체 인증 절차에 기반한 지속가능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고객 앞 제공. 본 정부의 에너지원 전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융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중이며, 일본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시장 형성에도 기여
- '21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가 기존 대비 상향되는 등 일본 정부 차원의 탈탄소 정책 추진 강도가 강화되는 상황. NDC는 '13년대비 26%에서 46%로, 신재생에너지 비중(30년)은 22~24%에서 36~38%로 확대할 계획
- 향후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DBJ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지원, 탄소 저감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 분야 위주로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최근 글로벌 국부펀드의 ESG 투자

- 국제금융센터 21.11.22

- 그동안 ESG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국부펀드들이 코로나19 충격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사회책임투자를 지향. 이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국부펀드의 ESG 투자 현황 및 특징을 정리함
- IFSWF 서베이에 의하면 국부펀드 중 93%는 기후변화가 포트폴리오 운용에 리스크 또는 기회로 작용하고, 과반수 이상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답변(34개 국부펀드 대상)
- **책임투자에 대한 여론 요구뿐만 아니라 ESG 투자가 견조한 수익으로 이어진 점이 ESG에 대한 국부펀드의 긍정적 인식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 Invesco 서베이에 의하면 기존에는 '수탁자 의무(54%)', '리스크 축소(51%)'가 주요 ESG 투자 동기였고 '수익률 개선(37%)'은 부차적 유인에 불과했던 반면, 현재는 '수익률 개선(52%)'을 주된 투자 동기로 선택한 응답자가 다수
- Global SWF 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 GPF가 화석연료 관련 주식을 모두 매각한 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에 투자했다면 자산규모는 현재 수준보다 10%(\$1,260억) 이상 컸을 것으로 추정
- 글로벌 국부펀드의 ESG 투자정책 구비 및 확충에 속도가 붙는 등 추세적으로는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 규모는 아직 제한적. 지역별로 선호 전략이 상이한 가운데 사모펀드(PE)·실물자산에 ESG 투자가 집중됨
- **실제 투자는 아직 제한적: IFSWF에 의하면 국부펀드의 88%가 투자결정 과정에 기후변화를 고려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52%는 실제 ESG 자산 규모가 포트폴리오의 10% 이하 내지는 전무하다고 답변**
- 지역별로 선호 전략 상이: 전반적으로 '경영관여/주주행동', 'ESG 통합'과 같은 포괄적 전략을 선호. '네거티브 스크리닝'의 경우 유럽에서 적극 활용되는 반면 아시아 등은 소극적. '임팩트 투자'는 데이터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저조
-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국부펀드는 기업들이 사회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투자를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방식보다 '경영관여/주주행동'을 선호
- PE(사모펀드)·실물자산 중심으로 ESG 투자: PE의 경우 상장 기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실물자산이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PE·실물자산을 ESG 주요 투자 대상으로 활용
- 국부펀드에 대한 공익성 제고 요구, 펀드의 재원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국부펀드의 ESG 투자가 확대될 전망. 다만 일부 국부펀드들에 대한 green-washing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A

## IFRS의 지속가능공시기준 내용과 시사점

- 자본시장연구원 21.11.22

-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2021년 11월 3일에 출범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를 통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에 관한 글로벌 기준점(global baseline)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재무회계 기준 및 감사·인증 체계와의 유기적인 통합을 달성하고자 함
- 중요한 점은 글로벌 기준점은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 관련 재무공시라는 점이고, 현재의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중심인 지속가능보고와는 차별화를 이룬다는 것임
- IFRS는 이를 위해 기술준비실무단(TRWG)을 구성하여 기준서의 원형(prototype)을 작성 중임. TRWG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를 제외한 기존 국제 기준 제정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제정기관들의 지속가능 관련 정보 제공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 평가에 있음
- ISSB가 출범하면서 TRWG는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음. 발표된 원형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 관련 공시 원형을 동시에 발표하였고, 나머지 사회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 기준에 적용할 예정임
- 아직 명칭이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IFRS 지속가능공시기준(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적용을 위하여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사항을 발표한 것임
- IFRS 지속가능공시기준의 원형은 우선 환경에 적용되어 동시에 발표됨. 환경 관련 기준은 ISSB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 확정될 예정임. 원형의 개념과 체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최종 채택될지는 모르나, 국제적인 제도 논의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국제 기준점의 도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 기업가치 측면에서 기업 스스로 판단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영향(impact) 정보는 제외될 수 있음. 투자자에게 중요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immaterial) 정보는 최대한 제외하려는 ISSB의 의도 때문임
- 정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목적 재무정보의 전달 채널은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존 사업보고서 내로 편입되어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와 기존의 재무정보로 연계성을 반영하여 통합될 수 있음
- IFRS 지속가능 공시 기준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의 체계를 원형 그대로 채택하고 있어, 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목표 측면에서 중요성을 담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국제적인 제도 논의의 흐름에 비추어보면 국제 기준점의 도출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우리나라 지속가능 정보 공시제도의 설계 과정에서 공시 표준화를 위한 자체 기준 마련보다 향후 제정될 국제 표준안과 유기적인 연계를 우선순위로 할 필요가 있음

A

### 글로벌 ESG 채권시장의 다변화 및 발행 후 공시 강화의 필요성

- 자본시장연구원 21.11.22

# A

- 글로벌 ESG 채권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2021년 상반기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이미 전년도의 90%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2020년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 ESG 채권시장의 구성도 다변화되고 있음. 그간 글로벌 ESG 채권시장은 녹색채권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에는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발행이 크게 증가함
- 또한, 2020년에 지속가능연계채권원칙, 기후전환금융 핸드북 등의 기준이 마련되면서 발행주체 기반도 확장되고 있음
- 지속가능연계채권(SLB) 시장의 발전도 발행주체 기반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2019년 최초 발행된 SLB는 발행규모가 당시 104억달러에서 2021년 상반기 425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전체 ESG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 2.8%에서 8.5%로 늘어났음
- 녹색채권을 비롯한 전통적 ESG 채권은 자금이 특정 환경·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나 사업에만 활용될 수 있는 반면, SLB의 경우 자금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
- 예를 들어 SLB 발행기업은 그룹 전체 차원에서 탄소배출 감축 등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목표(Sustainable Performance Target: SPT)를 선정하고 SLB를 발행해서 조달된 자금은 기업 운영 전반에 활용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특정 환경·사회적 프로젝트의 부재로 녹색채권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기업들도 SLB를 통한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
- 최근 ESG 채권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는 발행 후 공시, 특히 자금의 활용과 영향에 대한 정보의 양과 질을 어떻게 제고하고 표준화할 것인가임
-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및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에는 발행 후 자금이 어떠한 프로젝트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대효과가 얼마인지를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CBI는 녹색채권을 중심으로 발행 후 공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녹색채권 발행주체 중 77%가 자금 활용을 공시하고 있고, 59%는 영향을 공시하고 있으며, 두 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경우는 57%에 불과함
- 녹색채권 발행 후 공시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발행규모가 클수록 공시하는 비율이 높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이 공시의 양 및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ESG 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이 기후변화, 양극화 등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발휘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시장의 신뢰가 견고해지고 ESG 채권시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음

### 세계 도시의 친환경 전략과 수요산업 영향

- 포스코경영연구원 21.11.24

# E

- UN은 10월 31일을 '세계 도시의 날(World Cities Day)'로 제정하여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에 대한 도시 차원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세계 주요 도시 또한 탈탄소를 선언하고 청정 에너지 투자를 향후 10년 내 3배 가까이 증가시켜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뉴욕/베이징/파리 지방 정부는 도시계획과 IT 기술을 접목하고 시설별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아이템을 구체화하여 탈탄소 실행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 뉴욕시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건축 66%, 모빌리티 30%, 폐기물 4%이고, 비중이 높은 건축부문 온실가스를 '50년까지 현재의 80%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임. 공공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신축 대형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설계(~'25년), 건설 현장 화석연료 사용 제한(~'35년)
- 뉴욕: (건축) ① 그린 빌딩 장려를 위한 에너지 코드 생성(청정연료 사용 여부, 전면 유리 건축물 신축에 대한 강한 규제), ② 친환경 건축 증-개축 지원(태양광 발전 roof, 빗물 처리를 위한 blue roof), ③ 건축 설계에서 친환경 자재 선택의 중요성 강조(재생 불가능한 자재 구매 최소화)
- 뉴욕: (에너지) ① 도시 주변 버려진 토지에 태양광/풍력 발전(날개 없는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의 자가 발전 생태계 구축, 고비용 구조의 송배전 최소화, ② 도시 녹지의 80%를 Urban Farm으로 활용
- 코로나19 이후, 세계 도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20세기 후반 이래 오랜 기간 정립되어온 도시계획 원칙과 이를 적용한 노력에 대한 회의감 증대
- Compact City(고밀도 압축도시), TOD(대중교통 중심 개발), 에너지 자립 도시 등 도시 공간의 집약적 이용이 Contact-free 기조에서는 부작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대도시 분산 정책은 과잉 대응이며 고밀도 압축도시가 가지는 풍부한 의료 인프라가 주는 효용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인식도 상존
- 친환경 비즈니스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① 지방 정부의 친환경 전략을 리뷰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 제안하는 City Marketing을 도입하고 ② 원가 절감형 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로드맵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제 26 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주요 논의 동향과 시사점 - 국회입법조사처 21.11.23

# E

-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the 26th UN Conference of Parties, 이하 COP26)이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음. 개최국인 영국은 COP26의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유럽연합(이하 EU)등과 함께 활발한 사전외교를 펼쳤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당사국총회의 재개로 많은 기대가 쏟아졌음
- 하지만 전세계가 코로나-국제유가원자재 가격 폭등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고, 중국·러시아·브라질 등 주요 탄소 배출국 정상은 COP26 세계정상회의(World Leaders' Summit)에 참석하지 않아 협상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았음
- 본문 논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과 화석연료보조금이 언급되는 것을 러 시아·사우디아라비아·호주 등이 반대했고, 타결 직전 인도가 개도국의 배출권한을 주장하고 중국 이를 지지하여, 최종 협상 끝에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종식(phase out)이 아닌 감축(phase down) 노력이라는 완화된 표현이 합의문에 반영되었음
- 2018년 17개의 파리협정 이행규칙(Paris Rulebook) 중 유일하게 타결되지 못했던 국제탄소시장 이행규칙이 COP26에서 제정되었음. 파리협정은 온실가스의 유연한 감축이 가능하도록 '협력적 접근법'(6.2조, Cooperative Approaches)과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6.4조,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이라는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였음
- '협력적 접근법'이 파리협정 당사국간의 다양한 자발적 감축협력 활동을 통해 발생한 감축결과물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ITMOs)을 이전하여 국가감축목표(NDC)이행에 활용하는 체제라면,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은 유엔 감독기구의 관리 하에 인정되는 감축실적(Emission Reductions, ERs)을 자발적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업·정부 등이 활용하는 체제임
- 이번이 체결된 이행규칙은 감축실적을 거래 양국이 이중으로 국가감축 목표(NDC)에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응 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방안, 거래 수익금을 적응 자원(Adaptation Fund)으로 연계하는 방안, 지구 전체의 실질적 감축성과를 보장(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음
- COP26의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 합의가 1.5℃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당사국들은 탈석탄·탄소중립 등의 논의를 시작하는 작은 진전을 이루었음
- 우리나라는 상향된 2030 국가감축계획(NDC) 및 2050 탄소중립계획이 파리협정체계와 연동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탄소정책을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 활용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탈화석연료·친환경차로의 전환이라는 국제 동향에 발맞추기 위해 화석연료보조금 개선·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의 논의도 해 나가야 할 것임

## 글로벌 기업의 디지털 전환 특징과 시사점

-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21.11.12

# S

- 자동차, 기계, 가전, 바이오의약, 보험·금융 등 주요 산업에서 총 27개 해외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를 분석했고, 디지털 전환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 '제품·서비스 혁신', '프로세스 혁신', '마케팅 혁신' 유형으로 분류
- '제품·서비스 혁신' 유형의 첫 번째 특징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연결(Product Service System)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임
- 주행·센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데 이어 고객에게 자체 보험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테슬라가 가장 대표적임
- 두 번째 특징은,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영역으로의 기업 외연 확장을 모색하는 '신사업 진출'임. 세 번째 특징은 'AI·데이터 활용의 전산업 확장'임. AI와 데이터의 활용 목적과 범위는 기존의 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효율성 제고에서 수요 예측, 품질 제고, 재고관리 최적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 다음으로 '프로세스 혁신' 유형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과 수요처 확대 및 요구사항 복잡화에 대응한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축', 그리고 '디지털 전문기업과의 협업'이 주요 특징임
- 마이크로 반도체와 타이레놀로 익숙한 제약 기업 존슨앤존슨은 제조 공정, 최적화 유지보수 등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능적 에너지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음
- 또한 프랑스 국적의 글로벌 제약사 Sanofi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탈리아 최대 보험사 Generali, 프랑스 1위 통신사 Orange 등과 합작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한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 '마케팅 혁신' 유형에서는 '개인화된 고객 니즈 및 비대면 수요 대응'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가구·생활용품 기업 이케아, Microsoft 등은 고객의 구매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과 함께 실시간 커머스, 가상증강현실기술(AR)을 활용한 체험 서비스 도입 등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비대면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
- 국내산업의 데이터 생성·유통·활용 생태계는 기존의 개인정보 중심에서 향후 산업사물인터넷(IoT) 확산 및 빅데이터 처리능력 향상, AI 성장 등을 통한 산업데이터 활용 중심으로 변모해 갈 것으로 전망됨
- 디지털 역량을 갖춘 기업이라도 전문성을 보유한 서비스 기업 등과의 협력 및 M&A를 통해 신사업 진출 등의 성과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뉴딜 전략(20.7) 등 현재까지 정부에서 마련된 데이터산업 육성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함께 산업생태계 전반에서 기업 주도의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및 활성화가 필요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7.

적정한 가격에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VanEck Uranium + Nuclear Energy ETF

- 글로벌 우라늄 채굴, 가공, 탐사, 생산 및 개발 기업 등 우라늄 관련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 비중이 최소 50% 이상 종목으로 유니버스 구성
- 해당 유니버스 종목들을 유동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나열 후 상위 종목부터의 유동 시가총액 누적 합계가 85%를 차지할 때까지 해당 종목 지수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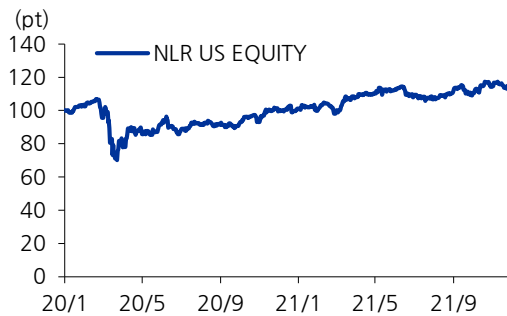
ETF 개요

티커	NLR US EQUITY
상장일	2007-08-15
운용사명	VanEck Vectors ETFs/USA
총보수율(%)	0.61
기초지수	MVIS Global Uranium & Nuclear
가중 방식	Modified Float-Adjusted Cap
주당 가격(달러)	54.6
보유종목 수	26
시가총액(백만달러)	355.8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26일 기준

주가 추이



기간	1W	1M	3M	YTD	Sharpe(% , 1Y)
수익률	-2.2	-4.0	1.8	11.0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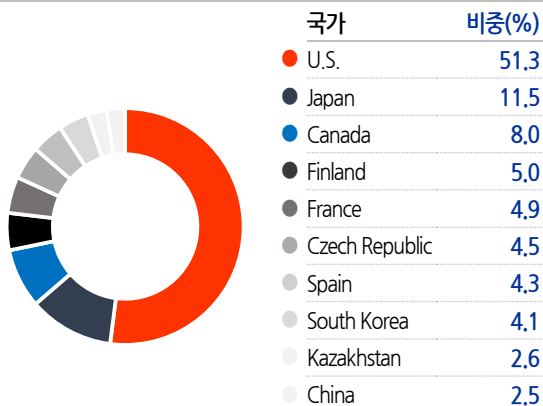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26일 기준  
주: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D US	도미니언 에너지	59,666	7.6
DUK US	듀크 에너지	76,346	7.6
EXC US	엑셀론	52,188	7.5
PCG US	PG&E	24,301	6.6
PEG US	퍼블릭 서비스	32,180	6.5
ETR US	엔터지	20,719	5.4
FORTUM FH	포르툼	25,003	5.0
EDF FP	프랑스전력공사	43,442	4.9
CCO CN	카메코	9,638	4.8
CEZ CP	체스	16,940	4.5
합계			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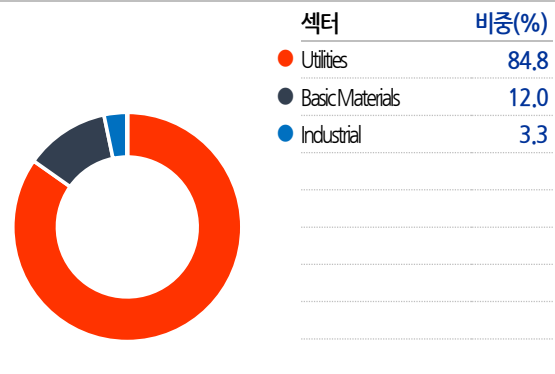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26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2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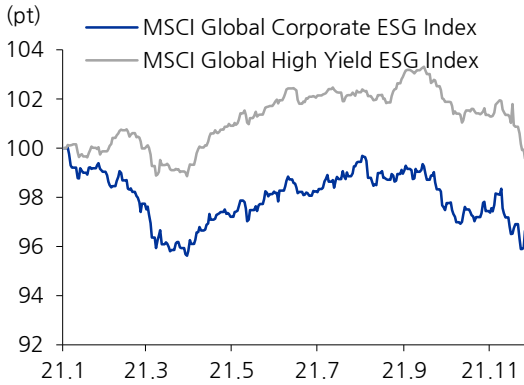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1월 26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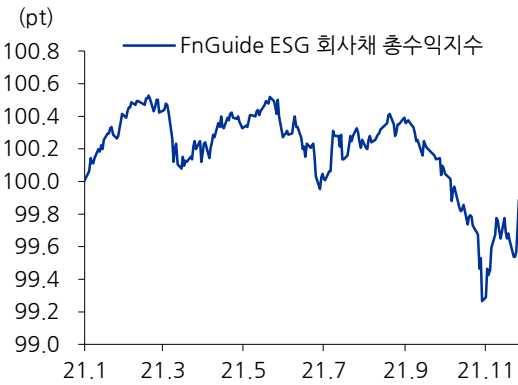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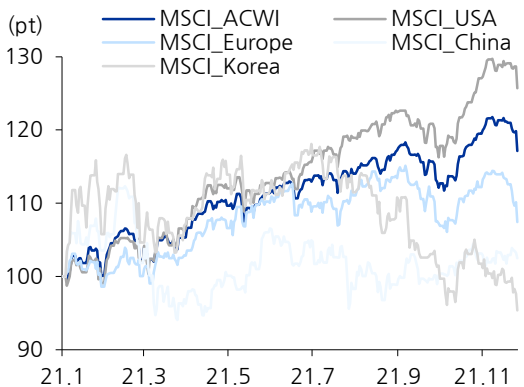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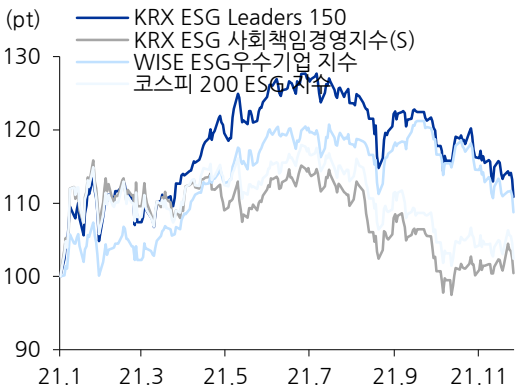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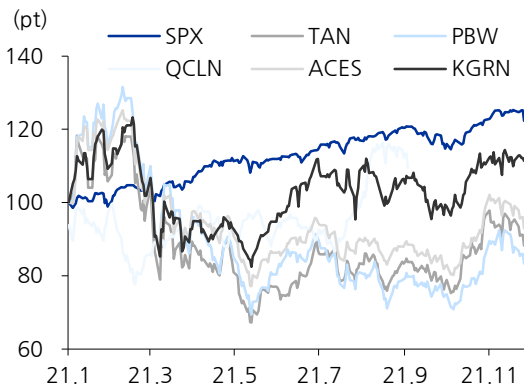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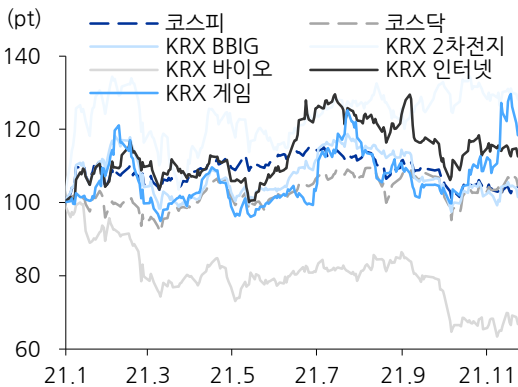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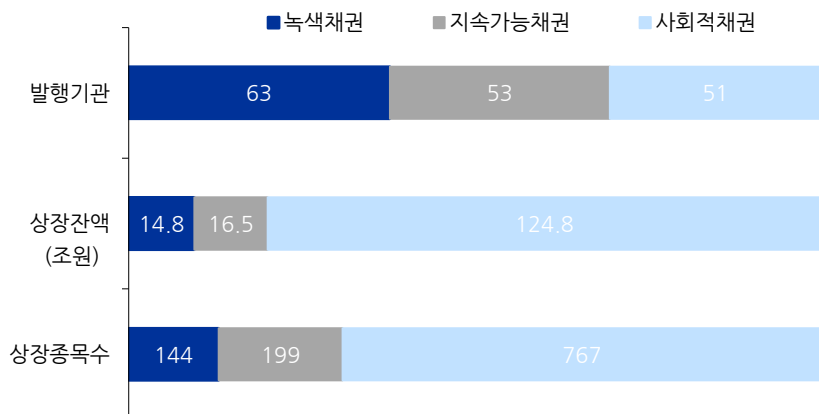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 신규 상장된 사회적채권

채권종류	종목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제 52 회 5011-25(사)	2021/11/26	2.43600	15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49(사)	2021/11/26	2.41000	80,000
사회적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750(사)	2021/11/26	2.49600	80,000
녹색채권	신한카드 2125-3(녹)	2021/11/25	2.47800	1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4(1-1)(사)	2021/11/25	1.60700	159,3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4(1-2)(사)	2021/11/25	2.00500	18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4(1-3)(사)	2021/11/25	2.17400	22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4(1-4)(사)	2021/11/25	2.43000	6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4(1-5)(사)	2021/11/25	2.54500	22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4(1-6)(사)	2021/11/25	2.64300	18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4(1-7)(사)	2021/11/25	2.61500	11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4(1-8)(사)	2021/11/25	2.60500	4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MBS2021-24(1-9)(사)	2021/11/25	2.58500	2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17(사)	2021/11/24	1.99800	30,000
녹색채권	한국동서발전 41-1(녹)	2021/11/23	2.40600	30,000
녹색채권	한국동서발전 41-2(녹)	2021/11/23	2.57800	10,000
녹색채권	한국동서발전 41-3(녹)	2021/11/23	2.55800	40,000
녹색채권	한국동서발전 41-4(녹)	2021/11/23	2.52100	40,000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 사회적채권 상장현황



자료: SR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1.09.30 기준)